

영국가전수출폭증

대우전자

영국에서 대우전자 가전제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영국에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올해들어 1/4분기 예정된 공급물량만 벌써 1억불이상 초과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지난해 영구에 컬러TV, VCR, 전자렌지, 냉장고, 청소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12월 한달동안 수출이 전년 동기 간보다 200%가 증가한 5천만불에 달했고, 지난해 전체로도 전년도보다 50%가 증가한 3억5천만불을 팔아 현지 가전 시장점유율을 20%를 달성,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컬러TV가 지난해 2억불 규모인 90만대를 수출하여 시장점유율 22%를 점유, 일본의 피나소닉, 소니를 제치고 1위를 달성하였고 전자렌지는 60만대를 수출, 시장의 30%를 점유해 일본의 샤프, 산요를 제치고 3년연속 1위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VCR은 52만대를 수출하여 일본의 마쓰시다에 이어 18%의 시장점유율로 2위에 올랐고, 노란색과 녹색 등 영국인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컬러 냉장고는

11만대, 청소기는 12만대를 각각 수출했다.

수출 품목도 최근 중·저가제품은 중국 등 동남아 제품에 밀리는 반면 25인치 이상의 컬러TV가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가 제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4헤드, 6헤드 VCR 등 고급사양의 제품들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도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같은 성과로 대우전자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8%가 증가한 4억5천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고 브랜드세일도 60%에서 올해는 7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전자는 영국 북아일랜드에 연산 200만대 규모의 VCR 공장과 런던에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 본격 참여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올해를 멀티미디어 종합가전회사로 재탄생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멀티미디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인터넷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인터넷 사업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전

략적인 투자를 통해 디지털 경영을 확립,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독립적인 콘텐츠사업자로서의 사업기반을 구축, 멀티미디어 제품과 통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우전자가 전자제품 및 유통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분야인 전자상거래 사이버 쇼핑몰 교육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크게 세분야에 주력키로 했다.

대우전자는 사업기반의 구축을 위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분야 매출액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유망 콘텐츠 사업자(CP) 및 어플리케이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키로 하고 특히 디지털TV, 인터넷TV 및 인터넷 세트톱박스 등 인터넷 관련 멀티미디어 제품들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서비스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국산동법인 외자유치

대우전자부품

기업개선택업(워크아웃)중인



전기차 리튬폴리머
전지 개발

삼성SDI

삼성SDI가 고에너지밀도의 전기자동차용 리튬폴리머전지를 개발했다.

삼성SDI가 지난 1년동안 60여명의 연구인력과 2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이 전지는 141Wh/kg의 에너지밀도와 289W/k의 출력밀도를 지녀 기존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보다 30%정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 크기와 디자인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엔진 부문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 무게도 기존 전지보다 30%이상 가벼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삼성SDI는 전지 개발과 함께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소재인 고용량 양극극 활성물질을 국산화하고 대형전지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도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6개 해외생산법인
올 매출 50% 늘린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올해 세계 전자

PC시장에 공략에 나선다.

그동안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제품판매에 주력해온 삼보컴퓨터는 이를 통해서는 수익확보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새해부터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000달러짜리 이상의 고가 PC시장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보컴퓨터는 최근 대당 1099달러하는 고가 「이폰스터550r」를 선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 98년 10월 미국에 e머신즈를 설립하고 PC공략에 나서면서 399달러, 499달러, 599달러 하는 저가 PC를 출시했으나 1000달러 이상의 고가제품을 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말부터 수출된 「이폰스터550r」는 기존 저가 PC가 인텔, 셀리론 중앙처리장치(CPU)를 장착한 것과 달리 펜티엄Ⅲ 550MHz 중앙처리장치(CPU)를 비롯해 64MB 기본메모리, 15GB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8배속 DVD롬 드라이브, CDRW 등 최신사양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사는 이번 미국 고가 PC 시장 진출로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컴팩컴퓨터, 델컴퓨터 등 해외 거대 업체들과 치열한 시장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전자부품의 중국산동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대우전자부품은 지난해 말 중국 산둥 생산법인 산둥대우전기유한공사가 중국건설은행에서 200만달러 정도의 외자를 새로 유치한 것을 비롯해 기존 차입금 200만달러도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외자 유치는 7.1875%의 고정금리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호조건으로 성사돼 앞으로 중국산동법인이 조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대우전자부품측은 설명했다.

대우전자부품은 워크아웃중임에도 불구하고,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앞으로 워크아웃 계획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외자 유치에 성공한 대우전자부품 중국 산동법인은 전자튜너·편향코일 등을 생산하고 있다.

미, 고가 PC시장에도 진출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가 미국의 고가

정보통신기기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고 중국 동관·텐진공장과 태국·포르투갈·멕시코·필리핀 등 6개 해외사업장의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50% 가량 신장한 15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해 5개 사업장에서 97년보다 52% 증가한 10억 2000만달러의 매출실적에 4180만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면서 「현재 2공장을 건설중인 필리핀 공장이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6개 해외공장에서의 올리는 매출이 15억달러, 순이익이 50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외 생산법인별로 보면 최대 해외 생산법인인 중국 동관공장의 경우 지난해 3억8000만달러보다 1억3000만달러나 성장한 4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태국공장은 지난해 1억8000만달러보다 10% 가량 증가한 2억달러를 매출실적으로 잡고 있으며, 멕시코공장은 전년 6100만달러보다 3900만달러가 신장한 1억달러, 포르투갈 공장은 지난해 1억4000만달러보다 6000만달러가 급신장한 2억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1공장을 가동중인 필리핀공장도 올 3월부터 적층세라믹 칩콘덴서(MLCC)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연 8000만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책임경영제 도입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각 사업부별로 대차대조표 작성과 함께 자산·자본의 흐름까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부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해 10개 국내사업부와 6개 해외사업장을 「사내컴퍼니」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자동차부품을 생산해왔던 부산사업장은 다층 인쇄회로기판(MLB)과 적층세라믹 칩콘덴서(MLCC)등을 전문생산하는 첨단전자부품 생산단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5일 부산사업장에서 열린 밀레니엄비전 선포식에서 삼성전기 이형도 사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밀레니엄 비전을 발표하고 2005년에 매출 10조원과 이익률 15%를 달성, 세계 초우량 부품업체로 탈바꿈하자고 선언했다.

삼성전기는 6개 해외법인의 경우 상품기획과 생산·판매 및 인력운용까지 독자적인 책임 아래 경영하도록 하는 독립법인 형태로 발전시켜 현지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다.

이 회사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사내벤처기업을 발굴, 독립기업으로 키우고 물류·특수생산공정을 떼어내 전문 자회사로

분사한다.

삼성전기는 이같은 경영구조를 기반으로 신기술과 신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MLB·칩부품·이동통신부품 등 10개 정도의 디지털부품사업군을 세계 1위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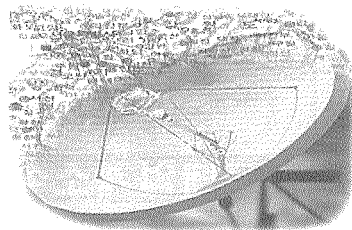
아울러 인터넷·네트워크 관련사업에 진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주문형반도체(ASIC)와 핵심소재기술을 확보해 차세대 디지털 디바이스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위성데이터 단말기 사업 '출사표'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미국 웨이크와이어리스와 손잡고 저궤도 위성데이터 서비스용 단말기사업에 나선다. 삼성전기는 1월 23일 신라호텔에서 미국의 웨이크와이어리스와 저궤도 위성 데이터 송수신단말기 공급은 물론 나아가 차세대 단말기까지 공동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 회사가 웨이크와이어리스에 공급하는 저궤도 위성 서비스 단말기는 825km 상공에 위치한 35개 저궤도 위성을 중계기로 삼아 VHF 주파수 대역(138~150.05MHz)에 담긴 각종 데



이터를 송수신하는 장치다.

특히 이 제품은 정지캐도 위성 서비스에 비해 공간전송 손실이 적어 양방향 비음성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차세대 단말기는 도난차량 추적장치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할 수 있도록 초소형으로 설계돼 개인이나 군부대 이동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8M 램버스D램 첫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반도체업계로는 처음 차세대 고속 메모리반도체인 288M 다이렉트 램버스D램과 아울러 16개의 단품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 576M 램버스D램 모듈까지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288M 램버스D램은 핀당 정보처리 속도가 평균 800Mhz로 1초에 200자 원고지 25만장 분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싱트로너스(S)D램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속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머리카락 두께(100미크론)의 약 600분의 1에 해당하는 회로선폭 0.17미크론(1미크론은 100만분의 1)

의 초미세 공정기술을 적용, 램버스D램의 최고 집적도를 실현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288M 램버스D램을 포함해 월 200만개 규모의 램버스D램을 이달부터 본격생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차세대 고속 메모리시장을 선점하고 S램에서 램버스D램으로 메모리반도체의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앞당길 방침이다.

램버스D램은 최근 델·컴팩 HP·IBM 등 대형 PC업체들이 이를 채용한 PC를 내놓으면서 올해 30억달러, 내년에 135달러로 시장이 급증하고 오는 2002년에는 전체 D램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램버스D램은 단품 단위로 용량을 높일 수 있어 PC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단품을 사용하면서도 고성능을 구현해야 하는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게임기 등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N세대 겨냥 누드 PC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누드형 디자인을 채택한 새로운 개념의 PC(모델명 네오)를 개발했다.

이 회사가 이번에 선보인 '네오'는 N세대를 겨냥해 컴퓨터

본체는 물론 모니터, 프린터 등 주변기기까지 순백색·청색·아쿠아색 등 다양한 색상의 누드형으로 통일했으며 인텔810 칩셋을 채택해 크기를 기존 제품에 비해 4분의 1로 축소했다.

이 제품은 소형 제품인데도 인텔셀러론 466Mhz 중앙처리장치(CPU)를 비롯해 64MB 기본메모리, 8.4GB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을 장착한 최신 사양을 갖추고 있다.

디지털 녹음기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자사 분사 벤처기업인 심스벨리와 공동으로 16MB용량의 플래시메모리를 내장했으며 최대 8시간 20분까지 녹음이 가능한 디지털 녹음기(모델명 SVR-S820)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 디지털녹음기는 압축방식을 기존 제품과 달리 DSP(Digital Signal Process)그룹의 트루스피치 알고리즘 방식을 채택하고 특히 500Hz에서 3.5kHz까지 샘플링 주파수 대역을 적용해 녹음시간을 대폭 늘린게 특징이다.

이 제품의 최대 녹음시간 8시간 20분은 기존 일본산 디지털 녹음기의 최대 녹음시간 4시간

에 비해 2배 이상 긴 것이다.

이 제품은 또 디지털 제품의 특성인 구분기능(폴더)을 살려 4개의 폴더에 각각 99개씩 총 396개의 메시지를 녹음·저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 부분만을 반복청취하는 기능, 소리가 없을 때 불필요한 녹음을 방지하는 음성감지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녹음 내용을 PC를 통해 편집과 저장은 물론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도 있으며 컴퓨터와 전화기 및 오디오 등도 전용라인으로 연결해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파장분할다중방식 이득평탄화 필터 세계 최초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WDM) 이득평탄화 필터(GFF:Gain Flattering Filter)를 세계 최초로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

WDM이란 케이블을 구성하는 각각의 광섬유에 여러개의 파장을 가진 광신호를 한꺼번에 담아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존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케이블망을 증설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WDM용

으로 개발한 GFF는 대량의 신호를 한가닥의 광섬유로 전송, 통신용량을 기존 제품의 10배 수준으로 늘려주는 통신신호 증폭용 핵심부품이다.

삼성측은 「이번에 개발된 필터가 기존 제품에 비해 디자인 및 제작이 쉬우며 평신호 전송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크게 줄인 데다가 미국 루슨트나 일본 후지쿠라에서 구현하지 못한 온도 보상법을 세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통신용량 증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또한 다양한 광신호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면서 제조단가를 기존 제품의 25% 수준으로 크게 낮춰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

CDT용 사각형 DY코어 개발

삼화전자

삼화전자는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의 편향감도를 크게 향상시킨 사각형 편향요크(DY)코어를 개발, 생산에 들어갔다.

이 회사가 1년동안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사각형 DY코어에 비해 편향감도가 30% 정도 향상된 제품으로 CDT의 소비전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이 제품은 기존 원형 DY코어에 비해 화면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고 편향보정회로 부품이 필요없어 세트 자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브라운관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화전자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사각 DY코어의 양산에 들어감에 따라 연간 1808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우선 이 제품을 19인치 CDT에 채택하는 한편, 회로기술과 생산기술 개발에 주력해 TV와 CDT전기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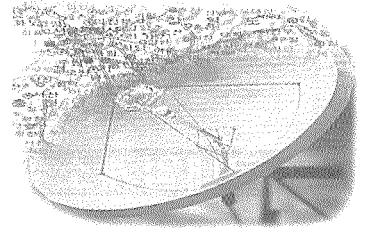
올 매출 1조2000억 목표

오리온전기

오리온전기는 최근 1조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총 930억원을 투자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조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올해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사업 구조조정과 공격적인 영업으로 지난해에 비해 12%이상 신장한 매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오리온전기는 우선 모니터용 브라운관(CDT) 비중을 지난해 48%에서 올해 73%로 끌어올리



고 제품 기종도 평면제품 위주로 운영해 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또 모니터 완제품 사업을 강화해 매출의 30%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며 베트남·프랑스·멕시코 등지의 해외공장에서 4500억원의 매출을 올려 해외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리온전기는 워크아웃 상황인 만큼 투자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기 생산라인의 신설·증설에 760억원, 보완투자에 170억원 등 모두 93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PDP, 차세대 브라운관, 유기 EL 등 전략 제품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영남 오리온전기 사장은 『디스플레이 사업에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로 「디스플레이 프로페셔널리즘」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했다』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조4000억원의 매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대수술

오리온전기

오리온전기는 조직슬림화를 뼈대로 사업조직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이 회사는 최근 유사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사업조직을 30%

이상 축소개편하고 국내 임원진을 줄이는 인사·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과감한 업무 통폐합,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PDP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이른 시일안에 워크아웃 관리체제에서 졸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남 사장은 「워크아웃 관리체제라는 창사이래 최대의 위기에서 자구계획을 차근차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업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직과 인사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초절전 LED신호등 개발

우영

전자부품 전문업체인 우영이 반영구적인 초절전발광다이오드(LED)신호 등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우영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추진중인 초절전형 전자광학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LED신호 등 미국 HP와 일본 니키아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보유한 기반기술로 이를 국산화함에 따라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소비전력 150W인 기존 백열신호등의 7분의 1 수준인 20W 전력이 소비되는 LED신호 등은 한번 설치하면 평균 19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기존 제품보다 3배 이상 밝기 때문에 미국·일본 등 선진각국이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집중 개발해 온 제품이다.

연간 6000만KW의 전력절감 효과와 더불어 사고감소 등 교통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양산체제에 들어가고 연말까지는 LED전구 등 다양한 응용제품도 선보이게 된다.

TFT LCD필름 소재 개발

SKC

SKC가 최근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필름 소재를 개발하고 지난달부터 국내 시장과 일본, 대만 등 해외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TFT LCD패널의 후면에서 빛을 균일하게 확산시키고 휘도를 향상시켜주는 광확산 필름, 광원의 초점을 모아주는 프리즘시트의 표면을 보호하는 보호필름, 도광판에서의 광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광반사필름 등 세 종류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

News

국내업계소식

제품들은 TFT LCD의 핵심소재로 고도의 정밀 가공처리기술과 표면코팅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 쓰치덴·케이와·기모토 등 3사가 독점생산해 왔다」면서 「이번 개발로 그동안 삼성전자·LG전자·현대전자 등 국내 생산업체들이 사용해 왔던 연간 500억원 정도의 물량을 국산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번 제품개발로 TFT LCD모델의 재고부담을 낮춰 국내 업체들의 납기대응력과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D급 VDP 개발

LG전자

LG전자는 세계 처음으로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의 약 4배 이상 용량으로 고선명(HD)급 비디오 신호를 재생할 수 있는 첨단 디지털 AV제품인 「HD급 비디오 디스크플레이어(VDP)」를 개발했다.

LG전자가 지난 2년간 40여명의 연구인력과 총 8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이 제품은 디스크 단면의 용량이 4.7GB인 DVD보다 약 4배 많은 18GB의 HD급 비디오 디스크를 고밀도 405nm의 블루 레이저 다이오드 픽업

을 통해 재생하는 첨단 디지털 AV제품이다.

이 제품은 HD급 비디오를 2시간 이상 재생하면서 정지화면·느린 화면·빠른화면 등을 구현할 수 있으며 DVD디스크와도 쉽게 호환·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디지털 V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24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갖췄다.

LG전자는 이 제품 개발을 위해 디지털 AV의 핵심 부품인 고밀도 블루 레이저 다이오드 픽업을 자체개발했으며 HD VDP 구격을 독자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부터 본격 논의될 국제 DVD 포럼에서의 차세대 HD규격회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특징은 직경이 기존 CD 및 DVD와 동일한 12cm 이면서 CD의 약 4분의 1 수준인 0.3mm의 디스크 두께와 0.351μm의 크랙 피치, 0.220μm의 최소 핏 크기 등을 실현시킨 것이다.

고성능 VSB칩 기술 개발

LG전자

LG전자는 디지털 TV의 수신 성능 저하(고스트현상)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고성능 VSB 전송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

다.

이 회사는 전송채널의 선택속도 개선과 채널 이퀄라이저의 향상기술을 적용해 이 기술을 개발했으며 빌딩밀집지역의 수신성능 저하문제(롱고스트)와 차량 이동시 수신성능 저하문제(다이내믹 고스트)를 2배 이상 개선하고 칩의 집적화율을 50% 이상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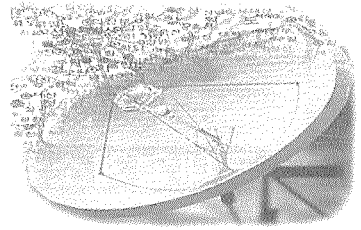
이 회사는 VSB칩을 상반기중 본격 양산할 예정이며 2003년까지 4년동안 5000만개를 공급, 1조원 규모에 이를 세계 VSB칩 시장의 40%를 점유할 계획이다.

이번 고성능 VSB기술 개발을 위해 LG전자는 지난 1년동안 연구인력 20명, 연구비 20억원을 투입했으며 관련 특허 337건을 국내외에 출원중이다.

VSB칩은 영상·오디오 등 압축된 디지털방송 전송신호를 수신해 원상태로 복원하는 디지털 TV의 핵심부품이며 미국의 디지털 TV규격(ATSC)은 VSB 전송방식을 채택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고성능 VSB 전송기술의 개발로 한국·미국·캐나다·대만·멕시코 등에서 채택한 미국방식 디지털 TV방송의 활성화는 물론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규격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LG전자는 자회사인 미 제니스가 VSB 전송기술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 디지털 TV의 보급이 활성화 할 경우 막대한 로



열티 수입을 거둘 수 있다.

CDMA WLL인도에 수출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이 국내 최초로 인도의 무선가입자망(WLL: Wireless Local Loop) 시장에 진출한다.

이 회사는 최근 인도의 국영 통신 사업자인 DoT(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가 주관한 WLL공개 입찰에서 모토로라·에릭슨·퀄컴 등 세계 11개 통신업체들과 경쟁,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LG정보통신은 이번 공급권 획득에 따라 1/4분기중 CDMA WLL시스템 및 단말기의 생산 판매를 위한 현지법인을 텔리시 인근 지역에 설립하며 이달에 DoT와 세부조건을 협의해 LG상사와 함께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될 CDMA방식의 WLL 시스템 및 단말기는 모두 5만6000회선 3500만달러 규모며 인도 남부의 마드라스, 서부의 아메다바드, 중부의 하이데라바드 등 인도 전역 16개 주요도시에 설치된다.

LG정보통신은 이번 공급권 획득으로 국내 최초의 인도 시장 진출업체가 됐다.

이 회사는 향후 100만 회선 규모의 인도 WLL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이번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인도 전역으로 WLL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에 대용량 교환기 수출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이 20일 VNPT(베트남 우전통신공사)주관으로 실시된 베트남 하노이 인근 닌빈성에 공급될 12만회선급 교환기 입찰에서 알카텔·NEC 등 선진 통신업체들을 제치고 공급권을 획득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교환기는 LG정보통신의 베트남 현지법인(VKX: Vietnam Korea eXchange, Ltd)에서 현지 환경에 맞게 개발된 12만회선급 대용량 교환기(모델명 스타렉스-VK)로서 올 연말 개통된다. 이번 교환기 공급으로 내년초부터 100만명이 거주하는 닌빈성의 전주민이 통신혜택을 받게 됐다.

LG정보통신은 지난 93년에도 닌빈성에 교환기를 공급한바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사업권 획득을 계기로 베트남에 대한 교환기 관련기술 이전교육 및 다양한 공공 분야 지원사업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

갈 계획이다.

LG정보통신은 지난 91년부터 자체 개발한 스타렉스 교환기를 비롯, 비동기전송모드(ATM)·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장비 등 첨단 통신 관련 기술을 베트남측에 지속적으로 이전해 주고 있다. 이어 지난 94년부터 한국-베트남 합작법인인 VKX를 설립, 베트남 전역 30개성에 교환기를 운용해 오고 있다.

미 현지법인 설립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이 네트워크 및 통신시스템 부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LG정보통신은 지난해 말 미국 실리콘밸리 내 새너제이에 가칭 새너제이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LG정보통신이 이번 네트워크 부문 지사 설립은 IMF 이후 구조조정 1순위로 지적돼 정리·퇴출 등의 수순을 밟아왔던 대기업들의 네트워크 부문 현지법인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너제이 지사는 네트워크 부문 원천기술 개발, 현지 시장 조사, 북

News

국내업계소식

미 지역 수출 전략 마케팅, 현지 업체 투자 등을 맡게 된다.

LG정보통신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현지인을 중심으로 인력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며 국내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광·무선 통신 부품사업 강화

한국단자공업

커넥터 전문업체인 한국단자공업은 21세기 전략품목으로 광통신 및 무선통신 부품을 선정하고 신제품 개발과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인천 남동공단 부근에 마련한 대지 1000평 건평 725평 규모의 단층 건물을 통신용 부품 생산공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최근 30억원을 투자해 이 공장을 3층(건평1800평) 규모로 증축, 이달부터 이동전화용 초소형 전압제어발진기(VCO)와 전압제어형온도 보상수정발진기(VCTCXO)를 각각 연간 500만개와 600만개씩 양산한다.

이번에 양산에 들어가는 이동전화용 VCO제품군은 위상잡음 특성이 우수하고 일본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VCTCXO는 0.07cc 용량의 초소형 제품으로 그동안 전

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TCXO를 대체할 수 있어 앞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가 기대된다.

이 회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선통신 부품의 소형화에 주력해 0.02cc 용량의 제품과 IMT 2000용 부품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 ABS Module Connector 개발

한국몰렉스

한국몰렉스는 지난해 12월 자동차의 ABS(Anti-Lock Brake System: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모듈에 적용되는 커넥터를 델파이 규격에 의거, 새로 개발해 몰렉스 자체시험과 델파이 시스템 시험을 끝내고 내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러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 개발된 이 커넥터는 확실한 방수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획기적인 신제품이다.

방수성을 높이기 위해 핀 전체가 사출물로 싸여진 insert molding 방식을 채택했으며 전선을 타고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ㄱ'자형의 사출물(wire dress cover)로 전선을 모두 아래로 향하게 했다.

전원용 4핀과 신호용 33핀으

로 나누어진 복합적 구조로 되어 하나의 커넥터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호용 33핀 중 하나의 핀은 전선이 아닌 공기가 통하는 튜브(vent tube)와 연결되어 있어 ABS 모듈 내부와 자동차 실내의 압력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커넥터 결합을 쉽게 하도록 기계적 도움 장치(cam lever)가 장착되어 있고, 커넥터와 터미널에 빠짐 방지 2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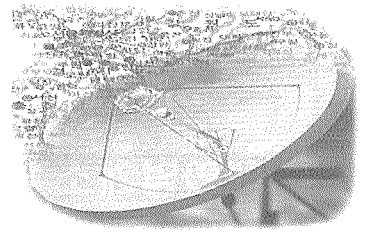
AAC SW 플레이어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MP3플레이어보다 압축률과 품질이 뛰어나 차세대 디지털 오디오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AAC(Advanced Audio Coding) 소프트웨어 플레이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Water marking)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무선방송기술연구소 방송기술연구부는 정보통신부 출연사업의 일환으로 MPEG2 ACC압축부호화 기술을 적용한 PC용 AAC소프트웨어 플레이어 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또 플레이어에서 사용 가능한 오디오 압축기술과 신호처리기술을

NATIONAL NEWS



적용한 워터마킹 기술을 동시에 개발했다.

AAC 플레이어는 스테레오 오디오에 대해 MP3플레이어보다 약 30%의 압축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MP3플레이어보다 우수한 품질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32MB의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MP3플레이어에는 4분 가량의 음악을 8곡 담지만 AAC플레이어는 11곡까지 담을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AAC플레이어는 스테레오 오디오를 재생하고 다른 오디오 플레이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면서 펜티엄Ⅱ 166MHz MMX개인용 컴퓨터에서 CPU점유율이 15%이하 정도여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또한 함께 개발된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은 저작자가 원하는 정보보호 데이터를 15초 이내에 72비트까지 삽입할 수 있고 CD는 물론 MP3·AAC등의 저작 부호화 방법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 정보 시대에 멀티미디어 정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 기술로서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위성방송사업 진출

한별텔레콤

통신장비업체인 한별텔레콤이 미국내 50만 가구, 250만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사업에 나선다.

이 회사는 지난 1월부터 미국 2대 위성방송사업자인 에코스타(Echo Star)의 6개 위성을 이용해 한인 교포들에게 국내 뉴스와 각종 TV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자사 위성방송수신기를 대당 200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업진출은 지난해 9월 에코스타로부터 한국어 채널 독점권을 획득하고 북미지역에서 위성방송사업을 운용중인 채널 코리아를 한별텔레콤이 5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널코리아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을 시작해 현재 YTN·HBS·대교방송·예술영화TV 등 국내 케이블TV프로그램들을 현지 송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별텔레콤이 나서 국내 지상파 방송국과의 프로그램 제휴도 추진한다.

한별텔레콤은 미국내 위성방송사업이 향후 6개월간 매출

1000만 달러를 달성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에코스타가 보유한 100여개 방송채널을 국내 시청자들에게 위성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카오디오·AV기기여 음성인식시스템 개발

현대전자

현대전자는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해 카오디오 또는 AV를 작동시키는 「카오디오·AV용 음성인식 시스템」 2개 모델(모델명 HA-951, HA-952)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등록된 음성명령만으로 차량에 탑재된 오디오·AV의 전원과 소리크기, AM·FM·TV·CD 등 모드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HA-951」은 7인치 AV시스템(HAV-72)과 연결해 음성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소리크게」등 11개의 음성을 인식한다.

또 「HA-952」는 현대전자에서 생산된 카오디오나 AV 중 리모컨 기능이 있는 제품만을 음성으로 작동시킬 수 있고 7개의 음성인식 기능이 있다.